

석사학위논문

무용 작품 「나를 찾아서」에 관한
연구

2021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이 수 빈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작품 「나를 찾아서」에 관한 연구

Analysis on the Work of the 「In Search of Me」

202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이수빈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작품 「나를 찾아서」에 관한 연구

Analysis on the Work of the 「In Search of Me」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이 수 빈

이수빈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나를 찾아서」 작품에 대한 분석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이 수 빈

본 논문은 현재의 밀레니얼세대가 가진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불안함에서 비롯된 고민을 주제로 만들어진 현대무용 작품 「나를 찾아서」에 대한 표현방법 연구와 분석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 세대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고민을 가졌었고 현재에도 가지고 있다. 6·25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는 국가와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민과 은퇴 이후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중부양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에 태어난 386세대는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고민과 현재에는 고임금 일자리를 독점한다는 사회의 질타를 받으며 은퇴의 갈림길에서 생기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1970~1980년대에 태어난 X세대는 자신의 자유와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개인주의적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사회의 비판에서 비롯된 고민과 현재에는 새로운 시도나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고민을 가지고 있다.

1981~1996년에 태어난 밀레니얼세대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비롯된 고민과 사회생활 속에 만들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모든 세대가 시대와 상황에 따른 고민이 있으며 이러한 고민들에 대하여 분석을 한 본 연구자는 밀레니얼세대의 고민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밀레니얼세대에 해당되는 본 연구자를 작품에 투영시켜 표현하였다.

밀레니얼세대의 불확실한 미래에서 비롯된 고민을 전달하기 위해 [밀레니얼세대 = 본 연구자], [사회생활 중에 겪는 인간관계 = 무용수], [종이컵 = 고민], 이 세 가지의 설정을 가지고 「나를 찾아서」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밀레니얼세대가 겪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사회생활 속에 만들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나가는 과정과 그에 따라 생기는 시련과 갈등을 표현하였고 이를 위한 표현방법 및 소품을 사용하였다.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종이컵이라는 소품을 반복적으로 쌓거나 찢는 행위와 종이컵에 대고 말을 하거나 소리치는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위의 고민 중 사회생활 속에 만들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세 명의 무용수들과의 움직임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무대의 공간 구성과 작품에 쓰이는 움직임 방법, 이미지, 작품에서 주제를 은유하는 소품의 의미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과정을 통해 발견 한 것은 현재의 밀레니얼세대가 가진 고민과 같이 이전 세대들 또한 각 시대와 상황에 따른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의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밀레니얼세대의 관점으로 바라본 고민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시각, 움직임 방법으로 해석하고 표현하였다는 것을 「나를 찾아서」라는 현대무용 창작 작품을 통해 알려 주고자 한다.

【주요어】 세대, 밀레니얼세대, 고민, 불확실한 미래, 인간관계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2.1 밀레니얼세대	4
2.1.1 밀레니얼세대에 대하여	4
2.2 우리나라의 세대	6
2.2.1 베이비붐세대	6
2.2.1 386세대	6
2.2.1 X세대	7
III. 작품개요	8
3.1 작품형식 및 구조	8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10
3.2.1 움직임 표현방법	10
3.2.2 의상	11
3.2.3 조명	13
3.2.4 음악	15
3.2.5 소품	17
IV. 작품분석	19
4.1 1장	20
4.1.1 내용 및 안무의도	20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0
4.1.3 음악	22
4.1.3 무대장치 및 조명	22

4.2 2장	22
4.2.1 내용 및 안무의도	22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3
4.2.3 음악	24
4.2.4 무대장치 및 조명	25
4.3 3장	25
4.3.1 내용 및 안무의도	25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6
4.3.3 음악	27
4.3.4 무대장치 및 조명	27
4.4 4장	28
4.4.1 내용 및 안무의도	28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8
4.4.3 음악	31
4.4.4 무대장치 및 조명	31
4.5 5장	31
4.5.1 내용 및 안무의도	31
4.5.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2
4.5.3 음악	33
4.5.4 무대장치 및 조명	33
 V. 결 론	 35
참 고 문 헌	38
부 록	40
ABSTRACT	43

표 목 차

[표 2-1] 밀레니얼세대	5
[표 2-2] 우리나라의 세대	7
[표 3-1] 장면의 특성	9
[표 3-2] 움직임 표현 방법	10
[표 3-3] 색의 연상과 무대의상의 상징적 표현	12
[표 3-4] 빛의 방향별 특성	14

그림 목 차

[그림 4-1] 플로어 패턴	21
[그림 4-2] 조명 플랜	22
[그림 4-3] 플로어 패턴	24
[그림 4-4] 플로어 패턴	24
[그림 4-5] 플로어 패턴	24
[그림 4-6] 조명 플랜	25
[그림 4-7] 플로어 패턴	27
[그림 4-8] 플로어 패턴	27
[그림 4-9] 조명 플랜	28
[그림 4-10] 플로어 패턴	30
[그림 4-11] 플로어 패턴	30
[그림 4-12] 플로어 패턴	30
[그림 4-13] 조명 플랜	31
[그림 4-14] 플로어 패턴	33
[그림 4-15] 조명 플랜	34
[그림 4-16] 조명 플랜	34

사 진 목 차

[사진 3-1] 무용수1 의상	11
[사진 3-2] 무용수2 의상	11
[사진 3-3] 무용수3 의상	11
[사진 3-4] 무용수4 의상	11
[사진 3-5] 소품	17
[사진 4-1] 1장 (고민들을 정리)	20
[사진 4-2] 1장 (고민을 정리해 지나가는 누군가와의 만남)	21
[사진 4-3] 1장 (정리해온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	21
[사진 4-4] 2장 (고민의 길잡이가 하는 모습에 호기심)	23
[사진 4-5] 2장 (고민의 길잡이와 의구심을 갖는 사람의 모습)	23
[사진 4-6] 2장 (자신의 방식으로 고민을 대하는 사람)	23
[사진 4-7] 2장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식에 좌절하는 모습)	23
[사진 4-8] 3장 (고민을 다시 정리)	26
[사진 4-9] 3장 (쓰러지는 고민)	26
[사진 4-10] 3장 (다른 사람의 모습 1)	26
[사진 4-11] 3장 (다른 사람의 모습 2)	26
[사진 4-12] 4장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감)	29
[사진 4-13] 4장 (다른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	29
[사진 4-14] 4장 (고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	29
[사진 4-15] 4장 (또 다시 어지럽혀진 나의 고민들)	29
[사진 4-16] 5장 (직접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다)	32
[사진 4-17] 5장 (직접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다)	32
[사진 4-18] 5장 (다른 고민을 발견)	32
[사진 4-19] 5장 (많은 생각과 감정을 담아 소리 지른다)	32

I. 서론

본 연구는 밀레니얼세대의 고민을 주제로 만들어진 「나를 찾아서」라는 작품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의 표현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각 세대들이 가진 고민 중 밀레니얼세대의 고민으로 특징지어 현대무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대한민국에는 여러 세대가 존재하는데 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386세대 (1960~1969년생), X세대 (1970~1980년생), 밀레니얼세대 (1981~1996년생), Z세대 (1997~2012년생), 알파세대 (2010년 이후 출생)가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6·25전쟁 후 태어나 ‘주산의 마지막 세대, 김맹 제1세대, 가족을 위해 밤새워 일했던만 자식들로부터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고 따돌림 당하는 비운의 세대’로 불려진다. 386세대는 ‘낮에는 돌을 던지며 학생운동,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고 밤에는 막걸리를 마시며 토론하는 대학생활에 익숙한 세대’로 알려져 있다. X세대는 당시에는 ‘정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뜻이었지만 제일기획은 X세대를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였으며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던 사람들로,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던 세대’라고 일컬었다. 밀레니얼세대는 ‘새로운 밀레니엄(2000년)에 대거 대학에 들어간 세대’, ‘X세대의 다음 세대란 이유에서 Y세대’, 또한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하였고 이전의 아날로그도 경험하여 ‘디지털 개척자, 디지털 유목민’으로 불리기도 한다. Z세대는 태어나자마자 디지털만을 경험하여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린다. 알파세대는 현재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포함하며 이들 또한 Z세대와 같이 ‘디지털 네이티브’지만 한편으로는 기계와의 일방적 소통에 익숙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대라고 한다.

이렇듯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에는 베이비붐세대를 시작으로 각각의 명칭으로 불리는 여러 세대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들은 당시 시대의 모습을 대변한다.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 당연했고 가족이 항상 우선이 되어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가족들에게는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모습과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학생운동,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 지내와 집단주의 문화가 익숙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가 익숙하고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이며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개인주의 문화가 익숙한 모습과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모두 경험한 부류와 디지털만을 경험한 부류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세대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대마다 배경과 특징의 다름에서 비롯된 추구 가치와 성향, 갈등, 고민에 대하여 질문이 생겼고 그러한 질문을 구체화하여 각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각자의 성향과 어떤 것이 그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고 갈등을 야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자는 그 중 현재 밀레니얼세대가 가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사회생활 속에 만들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경제적인 고민에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현재 밀레니얼세대의 불확실한 미래에서 비롯된 불안함과 이에서 비롯된 고민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에 투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불안함과 고민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해야 무용예술로써 승화 가능한지 실험하고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나를 찾아서」라는 작품에서 밀레니얼세대를 언급하여 작품을 이끌어나가는 주체로 인식시키고 밀레니얼세대가 가진 고민을 주제로 현대무용의 움직임과 표현방법을 이용하여 고민을 해결하려하는 모습과 그 과정 속에 생기는 어려움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실험에 있어서 제한점은 고민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워 아쉬웠지만 「나를 찾아서」라는 작품 안에서의 괴로움이나 힘겨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충분히 소통하고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기대해본다.

Ⅱ. 이론적 배경

세대라는 용어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자면

세대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세대라는 용어 역시 일상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세대의 어원을 추적한 나쉬에 따르면, 세대는 새로운 존재의 출현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Genos'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세대론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커처 교수는 세대란 개념을 크게 네 가지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가족 계보에서 조부모, 부모, 자녀로 종속되는 사람들. 둘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집단, 셋째,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같은 단계에 있는 집단. 넷째, 특정 전쟁 전과 후의 세대와 같이 특정한 역사 시기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다.¹⁾

오늘날 세대는 30년을 한 단위로 연령층이라는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른 생리적 성장변화와 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20년 간격의 연령층을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다... 흔히 오늘날에 와서 세대라 하면 소년기·청년기·장년기·노년기로 나누어 사람의 일생주기에 맞추어 구분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구분방법에 따라 4단계 세대를 15년 간격으로 기계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세대 구분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²⁾

즉 세대란 가족이라는 같은 뿌리를 둔 집단이나 비슷한 사회·문화·출생 시기·경험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386세대 (1960~1969년생), X세대 (1970~1980년생), 밀레니얼세대 (1981~1996년생), Z세대 (1997~2012년생), 알파세대 (2010년 이후 출생)가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세대 중 밀레니얼세대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1) 심혜경. (2019). 『밀레니얼에 집중하라』 (59~60). (주)북스고.

2) 김한초. (1995). 『세대(世代)』.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1 밀레니얼세대

2.1.1 밀레니얼세대에 대하여

밀레니얼세대는 1991년 미국의 닐 하우,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출간한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밀레니얼세대는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평균 소득이 낮으며 대학 학자금 부담도 안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³⁾

2018년3월1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1981~1996년에 사이에 태어난 인구를 밀레니얼세대라고 정의했다고 발표했다.⁴⁾

밀레니얼세대는 1981~1996년대에 태어난 세대로 새로운 밀레니엄인 2000년에 대부분 대학에 입학하였고 앞선 세대들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다.

또한 이전 세대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왔는데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모두 사용하며 디지털 개척자, 디지털 유목인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사회의 분위기 속 고용감소와 일자리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사회에 나서야 하지만 쉽게 나서지 못하게 되었고 대학 학자금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아직도 부모에게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해 켄거루족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모습을 빗대어 N포세대로 불린다.

3)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8). 『밀레니얼세대』. 시사상식사전.

4) 전병식. (2018). 『[교육칼럼]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 에듀프레스.

또한 이런 불확실한 미래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기조에 맞추어 YOLO 족이라는 수식어도 붙어있다.

밀레니얼세대는 앞선 세대인 X세대가 추구하던 자유와 표현에서 더욱 심화되어 자신의 개성과 행복, 표현, 창의적, 혁신적 생각까지 추구한다. 이러한 모습을 다른 세대에서는 개인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어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에서 발생된 간극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밀레니얼세대는 성장과정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언어,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며 이전 세대들에 비해 평균 학력이 높고 자신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 살아가지만 개인주의라는 비판에 사회생활 속에 만들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로 인한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사회에 진출하지 못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다.

[표 2-1]로 밀레니얼세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밀레니얼세대⁵⁾

구분	밀레니얼세대
출생연도	1981~1996년
주요 사건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인터넷-휴대폰, 2002년 월드컵, 디지털 1세대, 취업대란
신기술	인터넷, 스마트기기
추구가치	자유(개성), 개인행복(부, 여가), 표현, 창의, 혁신, 도전
특징	글로벌 문화에 익숙, 개성 강함, 온라인(컴퓨터)에 능숙
수식어	디지털 개척자, 디지털 유목민, 캥거루족, 단군 이래 최고의 고스펙/고학력, N포 세대, YOLO족

5) 김인옥. (2019). 『90년생이 팀장의 성과를 만든다』 (19~20). 텔루스.

2.2 우리나라의 세대

우리나라에는 출생 시기나 당시 사회의 주요사건으로 나누어진 세대들이 있다.

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부터 386세대 (1960~1969년생), X세대 (1970~1980년생), 밀레니얼세대 (1981~1996년생), Z세대 (1997~2012년생), 알파세대 (2010년 이후 출생)까지 우리나라의 세대들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세대 중 자료가 상당수 축적되어있는 베이비붐세대, 386세대, X세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2.1 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로 6·25전쟁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세대가 베이비붐세대이다.

이들은 6·25전쟁을 수습 하던 어수선한 당시 반공사상을 앞세워 사회 내부의 안정화가 시작되었던 시기에 새마을운동과 함께 국가, 직장,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 같이 성공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만연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개인 보다는 공동체에 가치를 중시하여 충실히 살아왔지만 IMF를 겪고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 자식에게는 외면당하지만 부모와 자식을 이중으로 부양해야하는 세대이다.

2.2.2 386세대

386세대는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대학에 다니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세대를 말하며 조직적 학생운동을 했던 경험으로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하다.

또한 이들은 학생운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정계로 많이 진출하였고 현재 고임금 일자리에 상당수 자리해있어 기득권 세력이라는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은퇴의 기로에 서있거나 아직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 세대이다.

2.2.3 X세대

X세대는 부모인 베이비붐세대가 이루어낸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던 세대들로 소비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고 TV와 라디오가 보편화됨에 따라 대중문화와 해외문화에 쉽게 접근하여 적극 수용하였다. 또한 이들은 컴퓨터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세대이기도 하다.

X세대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특징과 가치를 추구하였다. 앞선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시 되는 게 당연했지만 X세대부터는 개인이 우선시되고 이것을 뛰어넘어 개인의 자유와 표현까지 우선시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새로운 시도나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한다는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표 2-2]로 베이비부머세대, 386세대, X세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우리나라의 세대⁶⁾

구분	베이비붐세대	386세대	X세대
출생연도	1955~1963년	1960~1969년	1970~1980년
주요 사건	고도 경제성장, 유신, 새마을운동	5·18민주화운동, 학생운동	1980년말 경제호황, 정보화
신기술	라디오, TV	카세트	삐삐, 휴대전화
추구가치	반공, 국가, 가족, 헌신, 인내	혁명, 연대화, 협력	자유, 표현
특징	성공 추구	집합주의와 권위주의에 저항	자유문화와 소비에 민감, 컴퓨터 첫 세대

6) 김인옥. (2019). 『90년생이 팀장의 성과를 만든다』 (19~20). 텔루스.

Ⅲ. 작품 개요

3.1 작품형식 및 구조

본 연구자는 작품 「나를 찾아서」에서 밀레니얼세대의 고민을 주제로 ‘밀레니얼세대 = 본 연구자’, ‘사회생활 속에 만들어지는 인간관계 = 무용수’, ‘종이컵 = 고민’, 이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움직임, 표현 방법 및 형식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5장의 구성으로 나누고 4곡의 음악을 사용하였다. 또한 작품 중간마다 이루어지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 무음을 이용하였다.

“Wigman의 음악관점 즉, 음악이 존재하지 않아도 춤은 예술로서 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수 움직임을 강조하면서,··· 집중을 위해 무음을 사용했으며 2분과 3분의 사용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음사용의 시기적으로는 작품의 전반부에 무음 사용을 한 안무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⁷⁾

작품에 있어서 무음을 사용하는 것이 긴장감과 몰입감을 주어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으며 행위를 보여주기에도 효과적이다.

본 연구자의 작품 속에서도 1장, 2장과 3장 사이, 3장과 4장 사이, 4장과 5장 사이에 무음을 사용해 이미지와 행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자 무음을 사용 하였다.

또한 작품이 종이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설정되어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종이컵에 대고 말을 하고, 소리치고, 들으려고 하는 모습과 종이컵을 정리하고, 높이 쌓고, 어지럽히고,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밀레니얼세대 = 본 연구자’, ‘사회생활 속에 만들어

7) 최재연. (1998). 「현대무용에 있어서 무음사용이 갖는 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 (30,45).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는 인간관계 = 무용수’, ‘종이컵 = 고민’, 이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연관 지어 보여주고자 하였고 4명의 무용수들이 움직임을 이루었다.

[표 3-1]으로 각 장면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장면의 특성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음악	시간
1장	수많은 고민들을 정리 (고민 = 종이컵)	어지럽혀져있는 종이컵들을 정리한다.	무음	2분
2장	고민의 길잡이와 만남 (고민의 길잡이 = 다른 세대)	종이컵을 정리하던 무용수와 다른 무용수와의 듀엣움직임.	Beethoven -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2악장	5분
3장	같은 고민을 대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	두 명의 무용수가 마치 한 몸인듯한 움직임.	이병우 - 돌이킬 수 없는 걸음	6분
4장	다른 사람과 고민을 나누지만 역효과가 생긴다.	앞서 정리된 종이컵들을 무너뜨리고 세 명의 무용수의 움직임과 종이컵을 가지고 있는 무용수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용수의 역할 구분.	Shiva Drum	4분
5장	다시 어지럽혀진 고민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홀로 남은 무용수가 어지럽혀진 종이컵들 사이에서 찌그러진 종이컵을 발견하고 소리친다.	Erik Satie - Gymnopédie No.1	2분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3.2.1 움직임 표현방법

「나를 찾아서」의 전체적 움직임은 무용수 각자의 솔로 움직임과 종이컵을 사용한 움직임, 바디 컨택 (body contact) 으로 이루어져있다.

바디 컨택 (body contact)을 작품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접촉즉흥 (contact improvisation)을 통하여 움직임을 만들어 내었다.

접촉즉흥이란 포옹, 마살 아트 (martial art)처럼 듀엣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몸으로 터치하고 서로 지지하며 중력, 평형 등을 가지고서 하는 즉흥을 말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작품에서 필요로 하는 바디 컨택 (body contact) 움직임을 연구하였다.

또한 고민을 뜻하는 종이컵을 정리하고 찾고자 하는 움직임, 고민의 길잡이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높낮이 차이를 이용한 바디 컨택 (body contact), 두 무용수가 마치 한명의 신체인 듯 보이는 바디 컨택 (body contact), 종이컵을 이용한 무용수들의 솔로 움직임과 종이컵에 대고 말을 하거나 듣는 움직임이 작품의 주된 움직임으로 각 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 작품에 사용되는 음악들과 함께 연구하였다.

[표 3-2] 움직임 표현 방법

동기	탐구	기대효과
방향	높낮이를 이용한 방향	고민의 길잡이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움직임에 높낮이 차이를 두어 관계성을 선명하게 하였다.
행위	종이컵을 이용한 행위	종이컵을 이용한 행위를 통하여 종이컵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사람	각 무용수	작품을 이끌어가는 무용수가 다른 무용수들을 만나 벌어지는 각기 다른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3.2.2 의상



[사진 3-1] 무용수1 의상



[사진 3-2] 무용수2 의상



[사진 3-3] 무용수3 의상



[사진 3-4] 무용수4 의상

작품에 있어서 의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복의 형태로 정하였으며 비슷한 색감으로 맞추었다. 그리고 바디 컨택 (body contact) , 플로어를 이용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 의상들을 착용하였다.

[표 3-3] 색의 연상과 무대의상의 상징적 표현⁸⁾

분류	색의 연상과 의미	무대의상의 상징적 표현
 적색	태양, 피, 정열, 사랑	생명, 열정적인 사랑 표현, 감정적인 사랑
 갈색	가을, 풍요, 평온, 세속적	일반 대중적인 사람, 평범하고 친근한 느낌 표현
 황색	금, 빛, 교만, 질투	성격이 불안정한 사람, 배신자, 반역자, 의심 많은 사람
 미색	성실, 인내, 평온, 안정	차분한 사람, 성실함을 표현, 안정적인 분위기
 녹색	초원, 평화, 청춘, 안전	농부, 정원사, 하인의상
 자색	고귀, 우아, 장엄	왕, 귀족, 고위성직자, 고독한 분위기, 신비적 분위기
 청색	바다, 신비, 침착, 고요	냉정하고 고독한 사람, 고상하고 억제된 행동표현
 백색	탄생, 순결, 진실, 고독	천사, 성직자 의상, 혼례복, 상복,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 표현
 회색	재, 겸손, 우둔, 무기력	피동적인 사람, 노인을 상징, 조용하고 우울한 분위기 효과
 검정	어두움, 죽음, 엄격, 공포	예복, 상복, 쓸쓸한 사람, 엄숙하고 심원한 느낌 표현

8) (참고자료: Marian L. Davis,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 역, 복식의 시각디자인 , 서울: 경춘사, 1990. 연구자 재구성.)

의상의 색상은 네 무용수의 공통된 미색바탕에 한가지의 색감을 더하였다. 먼저 미색은 작품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선택하였으며 각각 무용수별로 색을 더하여 각자의 캐릭터를 만들었다.

[사진 1]의 무용수에는 갈색은 더해 친근한 느낌을 부각시켜 고민의 길잡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었고 [사진 2]의 무용수는 청색을 더하여 고독한 느낌을 더해 고민에 빠진 캐릭터를 만들었다.

[사진 3]과 [사진 4]의 두 무용수는 작품의 대부분을 바디 컨택 (body contact) 움직임에 하는데 검은색을 이용하여 한 사람의 신체인 듯 효과를 만들어내었고 이어지는 움직임에 다른 무용수와는 대비되는 엄숙한 분위기를 가진 캐릭터로 만들었다.

3.2.3 조명

작품 「나를 찾아서」의 조명은 각장의 이야기와 진행에 맞추어 조명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장은 무용수 혼자 수많은 고민들을 마주하고 정리하는 장면인데 이때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백색의 조명을 사용하여 장면을 연출하였다.

2장은 고민의 길잡이와의 만남인데 이때 등장하는 무용수의 의상의 색상과 사용되는 음악의 분위기에 맞추어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앰버 (amber) 톤의 조명을 사용하였다.

3장은 무대를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기 위하여 윗광 (top light) 조명을 사용하였는데 두 명의 무용수가 있는 공간과 한 명의 무용수가 있는 공간으로 나누기 위한 조명을 사용하였다.

4장은 바디 컨택 (body contact)을 하던 두 무용수와 홀로 있던 무용수와 만나게 되어 진행되는 장면인데 이때에는 강한 느낌의 음악과 차가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블루 (blue) 톤의 조명을 사용하였다.

5장은 1장과 같은 백색의 조명을 사용하였으며 홀로 남은 무용수가 집중이 될 수 있게끔 조명들이 줄어들어 윗광 (top light) 조명만 남게 된다.

또한 작품 안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움직임과 표현의 포인트를 상

측광 (high side light), 옆광 (side light) 조명을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4] 빛의 방향별 특성⁹⁾

빛의 방향	시각적 선명도	극적 효과	분위기
앞광 (front light)	선명도가 가장 유용하다.	극적 효과를 내는데 약하다.	중성적 분위기
뒷광 (back light)	사실적 표현을 위해 추가되어 사용된다.	극적인 효과를 표현하는데 유용	후광만 있을 때 무서운 분위기
상측광 (high side light)	가시성이 떨어진다.	극적인 효과에 매우 효과적	질감을 잘 보여준다.
옆광 (side light)	상측광과 비슷하나 사실성이 떨어진다.	극적인 효과에 매우 효과적	질감을 잘 보여준다.
윗광 (top light)	부적합하며 그림자가 심하게 생긴다.	배우를 비출 때 매우 강한 효과	공격적인 분위기
바닥광 (foot light)	매우 이상한 그림자가 생긴다.	효과적이나 부자연스러워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공포스러운 분위기

9) 고희선, 김창기, 이성호, 이종규, 천세기. (2007). 「무대조명Ⅲ」 (41). (주)교보문고.

3.2.4 음악

“무용은 독립성이 강한 예술이 아니며 육체에 의해 표현하는 말없는 예술이다. 또한 그 전달성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또한 따른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전달, 표현을 위해 안무가들은 미술과 음악 등의 다른 예술의 기능을 가져왔으며...”¹⁰⁾

무용 작품에 있어 음악은 작품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도하며 움직임과 표현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떠한 음악을 쓰느냐에 따라 작품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으며 움직임과 음악의 조화로 전하고자 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를 찾아서」의 작품에서는 무음과 베토벤의 피아노 연주곡, 이병우 기타리스트의 기타 연주곡, Shiva Drum이라는 강렬한 비트의 음악, Erik Satie의 피아노 연주곡 까지 여러 곡이 사용되었다.

이들 음악 모두 각각의 색깔은 다르지만 각 장면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곡들로 선택하였고 무음을 1장, 2장과 3장 사이, 3장과 4장 사이, 4장과 5장 사이에 사용해 긴장감과 몰입감을 주어 이미지와 행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1. Beethoven -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2악장 (2장에서 사용)

베토벤의 유명한 피아노 연주곡 중 하나인 ‘비창’ 중 2악장은 느린 박자의 곡으로 우아한 선율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가진 곡이다.

이 음악은 2장에서 사용되었으며 1장의 무음 장면에서 고민을 정리하던 무용수와 고민의 길잡이가 만나 높낮이 차이를 이용한 바디 컨택 (body contact) 움직임을 시작할 때 음악이 나온다.

1장에서 홀로 고민을 정리하던 무용수가 고민의 길잡이를 만나서 생기는 일들에 대하여 음악이 주는 편안한 분위기의 연주와 상반되는 느낌을 주는 변주들이 불안함과 극적인 변화를 주어 2장의 움직임과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선택하게 되었다.

10) 정혜정. (2006). 「무용창작에 있어서, 무음악 사용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 Doris Humphrey의 Water study를 중심으로」 (3).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전문사증서논문.

2. 이병우 - 돌이킬 수 없는 걸음 (3장에서 사용)

이 음악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기타 연주의 미묘한 펄림과 강약 조절을 이끌어가는 멜로디로 구성되어있는 연주곡이다.

이 곡은 3장의 도입부에 높이 쌓아진 고민이 쓰러지며 나오는 음악이며 이 장면에서 또 다시 고민을 정리하는 무용수의 모습과 마치 한 몸인듯한 바디 컨택 (body contact) 움직임에 하는 두 무용수의 움직임과 표현을 배가시키고 노래의 감정선을 이용하여 관객들을 몰입시키기 위해 선택하게 되었다.

3. Shiva Drum (4장에서 사용)

4장에서 홀로 있던 무용수가 다른 두 무용수를 만난 상황에서 나오는 음악이며 작품의 음악들 중 유일하게 빠르고 강한 베이스 비트, 끊임없이 쌓아지는 멜로디, 음악 중간 마다 변주가 들어있는 음악이다.

4장에서는 이 음악이 주는 속도감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이전 장면들과 다른 속도와 질감을 보여주는 움직임들로 구성되어있어 음악이 주는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4. Erik Satie - Gymnopedie No.1 (5장에서 사용)

이 음악은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의 강약조절을 통해 간결하고도 단순한 구성의 연주곡이다.

5장에서 사용되며 무용수가 다른 고민을 발견하였을 때 나오는 음악으로 이 노래의 차분하고 간결한 분위기가 이 작품 마지막 장면에서 감정 실어 소리치는 표현과 모습에 효과를 주고 관객들에게 작품의 여운을 남기기 위해 선택하였다.

3.2.5 소품



[사진 3-5] 소품 (종이컵)

작품의 주제 및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 5]와 같은 종이컵을 사용했다. 종이컵의 형태는 높이 약 14cm, 윗지름 약 0.8cm, 밑지름 약 0.6cm이며 흰색이다.

종이컵을 소품으로 쓰게 된 계기는 종이컵은 액체나 고체를 담을 수 있는데 나의 고민도 담을 수 있을까?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생각과 별개 아닌 종이컵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한번 쓰이고 나면 쓰레기지만 나한테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본인의 과대해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자는 종이컵을 소품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고민이라는 주제와 융합하여 표현하고 관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장에서는 무용수 홀로 어지럽혀진 종이컵들을 정리하고 2장에서는 종이컵을 든 다른 무용수와 바디 컨택 (body contact) 움직임과 종이컵에 입을 대고 말을 하거나 귀를 대어 들어본다.

3장에서 종이컵들을 높이 쌓고, 높이 쌓아진 종이컵들이 쓰러지며 다시

어지럽혀진 종이컵들을 다시 정리하며 4장에서 두 무용수가 종이컵에 입을 대고 다른 무용수에게 말을 하거나 공격적인 형태를 취할 때 다른 무용수는 그 표현에 반응하여 정리된 종이컵들을 무너뜨린다.

5장에서는 무엇을 찾는 듯 종이컵들을 살펴보고 어지럽혀진 종이컵들 사이에서 찌그러진 종이컵을 발견하고 그 종이컵을 입에 대고 소리친다.

이렇듯 작품의 주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종이컵은 고민을 의미하는 소품이며 작품은 종이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종이컵을 가지고 하는 행위나 표현을 통하여 종이컵을 관객들에게 각인 시켜 주제를 표현하였다.

IV. 작품 분석

안 무 : 이수빈

출 연 : 김나연, 박정무, 이수빈, 조영재

음 악 : Beethoven -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2악장

이병우 - 돌이킬 수 없는 걸음

Shiva Drum

Erik Satie - Gymnopédie No.1

소 품 : 종이컵 (높이 약 14cm)

작 품 시 간 : 19분

1. 작품주제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밀레니얼세대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 사회생활 속에 만들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경제적인 고민 등 많은 고민들이 있다.

이런 고민들은 밀레니얼세대를 괴롭히며 끊임없이 고민에 빠지게 하겠다. 사회에 나서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을 앞으로도 잘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일을 도전해야하는지.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러는 걸까?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싫다.

밀레니얼세대에게 불확실한 미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생각하게하고, 고민하게하고, 불안하게 한다.

2. 작품의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 사회생활 속에 만들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경제적인 고민 등 여러 가지 고민을 밀레니얼세대 또한 똑같이 고민한

다.

그러나 이전의 다른 세대들 또한 각자만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가족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한다, 부조리한 정부는 바뀌어야한다, 나를 표현하는 게 가장 먼저다. 와 같은 이러한 고민을 겪어오며 해결해냈다.

하지만 현재의 밀레니얼세대가 가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 사회생활 속에 만들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려는 모습과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한다.

4.1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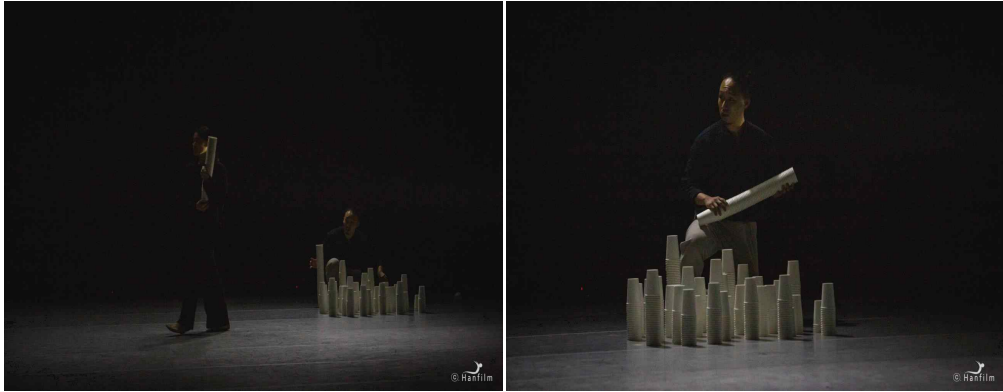
4.1.1 내용 및 안무의도

누구나 각자의 고민이 있지만 밀레니얼세대가 고민을 대하는 방식, 행동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수많은 고민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해나가다 누군가 고민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정리해온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4-1] 1장 (고민들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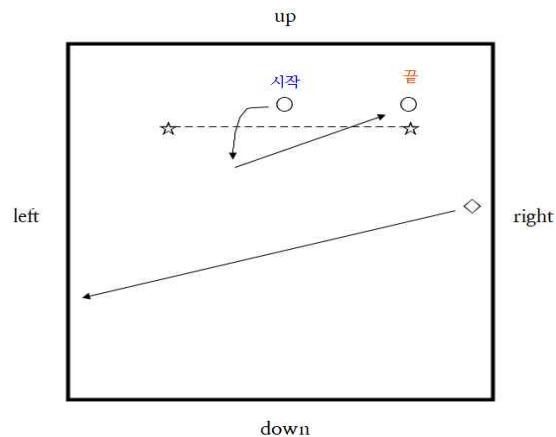


[사진 4-2] 1장 (고민을 정리해
지나가는 누군가와의 만남)

[사진 4-3] 1장 (정리해온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

1장의 특징은 움직임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두었다. 작품의 시작과 함께 어지럽혀진 고민들을 정리하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의구심을 심어두어 작품의 진행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1장에서는 종이컵을 무용수가 계속해서 정리하는 모습을 통해 작품에서의 오브제임을 암시한다. 플로어 패턴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누군가, ○=무용수1, □=무용수2, △=무용수3, ▽=무용수4. ☆=소품 (종이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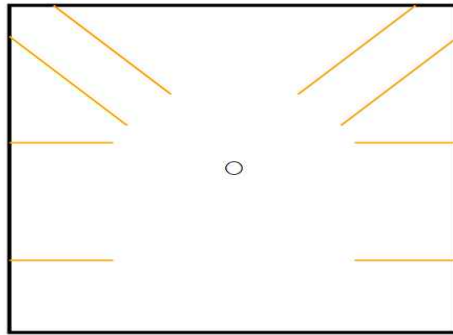
[그림 4-1] 플로어 패턴

4.1.3 음악

무음으로 진행하였으며 작품의 시작과 함께 무용수가 하는 행위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연출하였다.

4.1.4 무대장치 및 조명

무대 공간이 서서히 들어나도록 상측광 (high side light)과 옆광 (side light)을 시간을 두어 서서히 빛을 비추었으며 무음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관객들에게 집중도 있게 보이기 위해 위의 조명들을 이용하였다.



[그림 4-2] 조명 플랜

4.2 2장

4.2.1 내용 및 안무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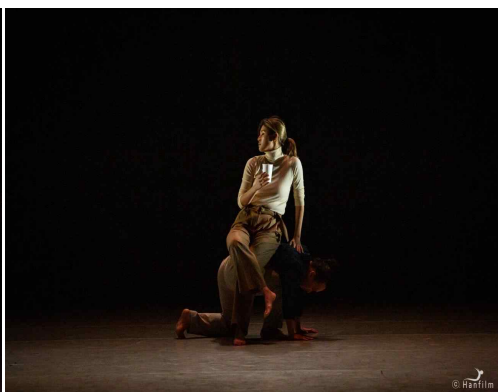
고민을 정리하였지만 의구심을 갖던 무용수에게 고민의 길잡이가 등장한다. 고민의 길잡이가 고민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무용수는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기위해 다가가고 길잡이는 고민의 해결방법

을 알려주지만 그것이 맞지 않는 무용수는 좌절한다.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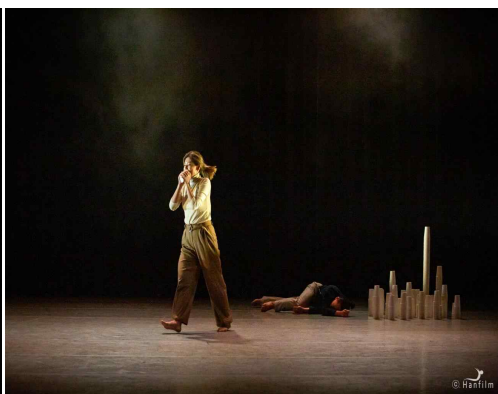
[사진 4-4] 2장 (고민의 길잡이가 하는 모습에 호기심)



[사진 4-5] 2장 (고민의 길잡이와 의구심을 갖는 사람의 모습)



[사진 4-6] 2장 (자신의 방식으로 고민을 대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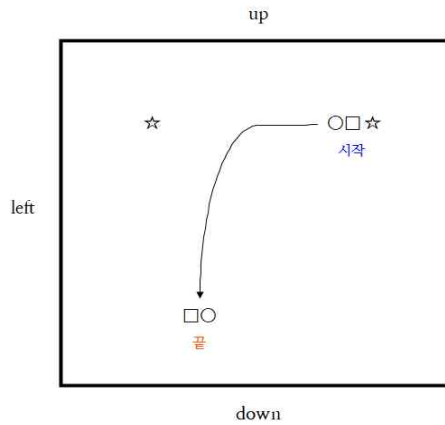


[사진 4-7] 2장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식에 좌절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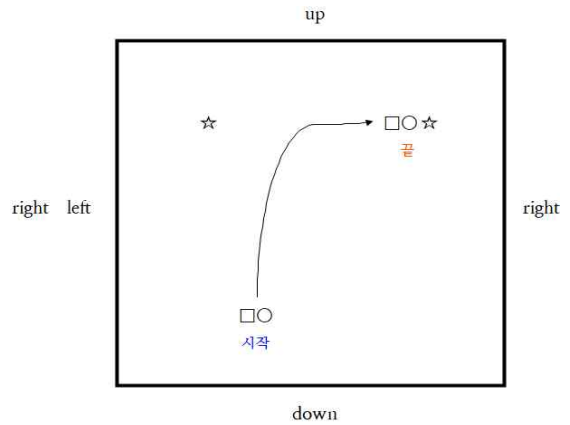
2장에서는 오브제의 의미를 1장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하여 표현하였고 무용수들의 관계성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 높낮이 차이를 이용하였다.

의구심을 갖던 무용수는 의자와 같은 형태로 아래에서 받쳐주며 고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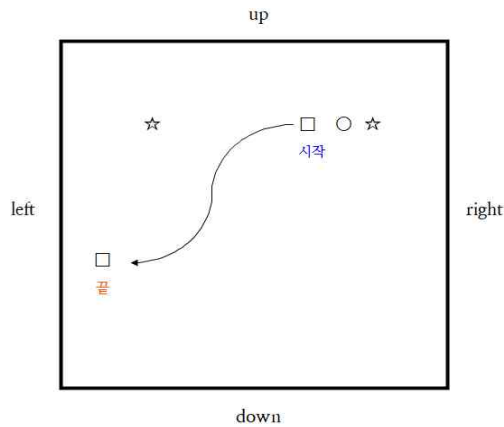
길잡이 무용수는 그 위에 앉는 모습을 보여주며 높낮이 차이를 이용하였고 고민의 길잡이 무용수가 제시하는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따라가지만 그것이 맞지 않아 바닥에 쓰러져있는 모습을 통하여 표현한다.



[그림 4-3] 플로어 패턴



[그림 4-4] 플로어 패턴



[그림 4-5] 플로어 패턴

4.1.3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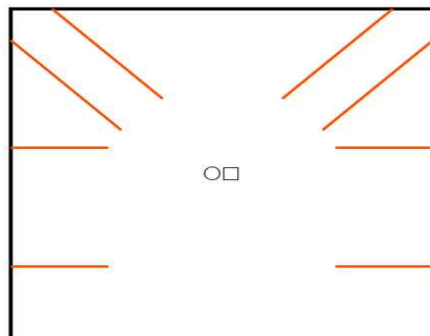
무음이었던 1장이 끝나고 고민의 길잡이가 하는 모습에 호기심을 갖던 무

용수가 바닥에 내려가 발판을 만들어 주는 순간 피아노 연주곡이 나와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음악이 주는 편안한 분위기의 연주와 상반되는 느낌을 주는 변주들이 2장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의 전환이나 무용수들의 높낮이 차이, 음악과 반대되는 바쁜 모습에 극적인 변화를 주어 2장의 움직임과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4.1.4 무대장치 및 조명

2장의 음악이 시작됨과 동시에 1장의 조명에서 서서히 앰버 (amber) 톤의 조명으로 전환되고 무용수들의 표현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1장보다 더 밝아지고 앰버 (amber) 톤의 색감과 음악의 분위기, 고민의 길잡이 무용수가 입은 의상의 색감을 집중시켜 2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그림 4-6] 조명 플랜

4.3 3장

4.3.1 내용 및 안무의도

2장에서 좌절에 빠진 무용수는 다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나 고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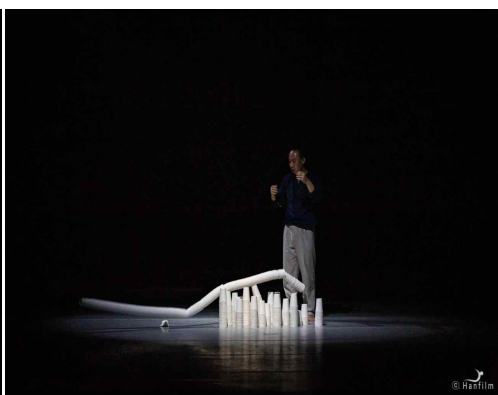
다시 정리한다.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 자신보다 커진 고민은 쓰러지게 되고 쓰러진 곳에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며 무용수는 다시 어지럽혀진 고민을 또 다시 정리한다.

3장의 주된 움직임인 두 명의 무용수가 하는 바디 컨택 (body contact) 움직임을 2장과 같은 접촉즉흥 (contact improvisation)을 통하여 연구하였고 두 명의 무용수가 하는 움직임이지만 한 명의 무용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안무하였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4-8] 3장 (고민을 다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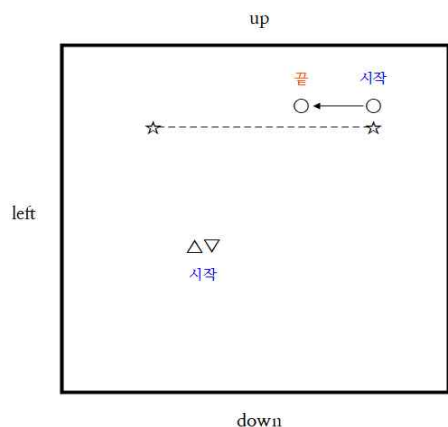


[사진 4-9] 3장 (쓰러지는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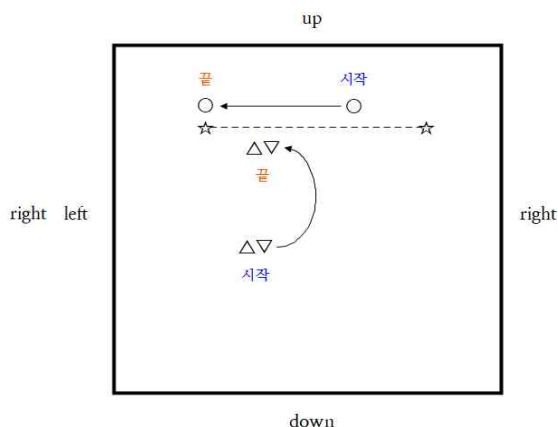


[사진 4-10], [사진 4-11] 3장 (다른 사람의 모습 1), (다른 사람의 모습 2)

3장의 도입부에서 1장과 같이 무음이 사용되었는데 그전과는 다르게 높이 쌓아지는 고민과 쓰러지는 모습을 관객들이 몰입 할 수 있게 의도하였고 3장에서 등장하는 두 명의 무용수는 마치 한 몸인 듯 움직이며 다른 관점의 표현방법과 움직임을 연구해 보았다.



[그림 4-7] 플로어 패턴



[그림 4-8] 플로어 패턴

4.3.3 음악

3장의 도입부분 무음에 높이 쌓아진 고민들이 무너지고 음악이 나오며 3장을 이끌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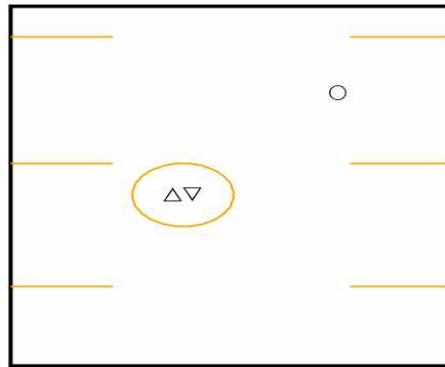
한 곳은 편안한 분위기에 두 명의 무용수가 한 몸인듯한 움직임을 하며 다른 한 곳은 설 새 없이 다시 고민을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두 무용수의 움직임과 표현을 배가시키고 다른 무용수는 다시 고민들을 정리한다. 3장의 음악은 이러한 비교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음악이다.

4.3.4 무대장치 및 조명

높이 쌓아진 고민들이 무너지고 동시에 3장의 조명이 전환된다. 이때 두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이게 하려 위광 (top light)을 사용하여 공간을 나누었고 옆광 (side light) 조명을 사용하여 위광 (top light)에 있는 무용수들의 표현은 선명하게 홀로 남아 고민을 정리하는 모습을 은은하게 보이게 하였다.



[그림 4-9] 조명 플랜

4.4 4장

4.4.1 내용 및 안무의도

홀로 다시 고민을 정리하던 무용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먼저 다가가 고민을 보여주지만 그들은 고민에 대하여 생각과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되고 그로인해 나의 고민들은 다시 무너지고 어지럽혀진다. 3장에서 위광 (top light) 조명으로 공간을 나눈 것을 4장의 시작과 함께 조명이 바뀌며 홀로 있던 무용수와 두 명의 무용수와 만나게 되고 이들의 만남으로 새로운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것에 대한 표현방법과 움직임의 연구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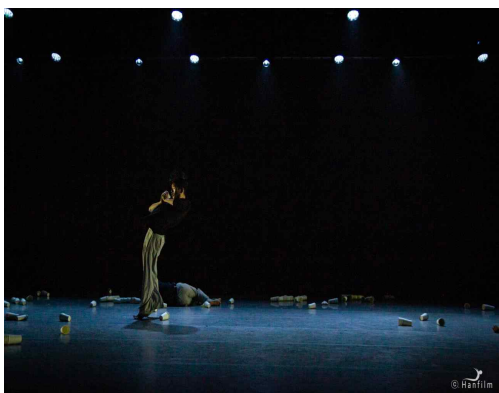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4-12] 4장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감)



[사진 4-13] 4장 (다른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



[사진 4-14] 4장 (고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



[사진 4-15] 4장 (또 다시 어지럽혀진 나의 고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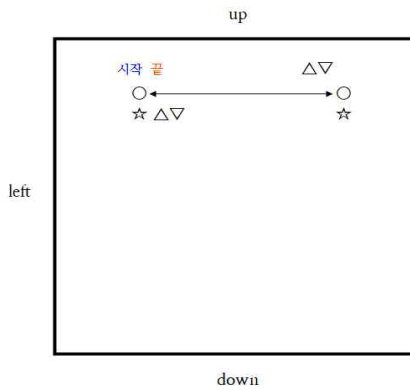
4장에서 또 다시 고민이 어지럽혀지는데 이때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어지럽혀지게 된다.

이들의 관계를 앞선 3장에서 조명을 사용해 다른 공간을 만들어 구분지어 놓았는데 4장에서는 조명이 바뀌며 홀로 있던 무용수를 발견하게 되고 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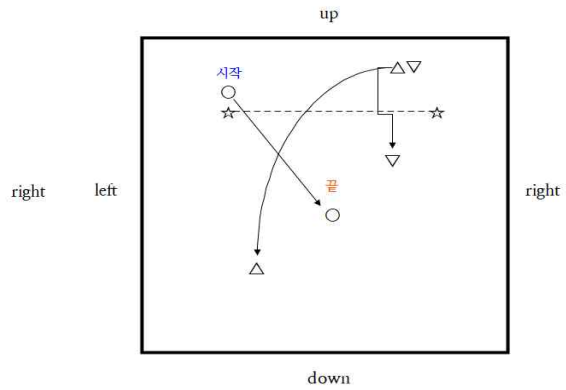
있던 무용수는 다른 무용수들에게 고민을 들고 다가가며 4장이 진행된다.

4장은 다른 무용수들이 종이컵을 들고 공격적인 모습을 하며 정리해둔 고민들로 무용수를 몰아붙이고 또 다시 어지럽혀진다. 이전 장면들과 다른 빠른 속도와 강한 질감의 움직임들로 구성하였으며 고민을 가지게 된 두 명의 무용수는 독무를 하며 고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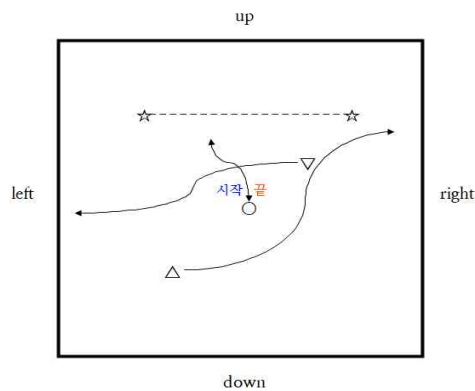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에 다시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회생활 속에 만들어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과 연계해 표현해보았다.



[그림 4-10] 플로어 패턴



[그림 4-11]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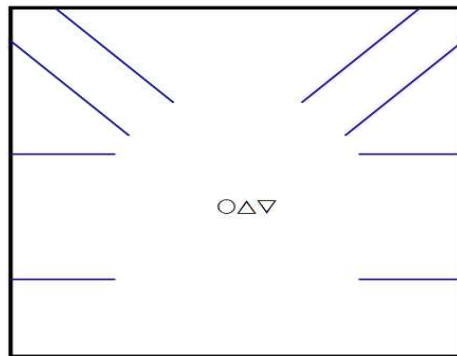
[그림 4-12] 플로어 패턴

4.4.3 음악

4장의 음악은 강하고 빠른 베이스 비트, 끊임없이 쌓아지는 멜로디, 음악 중간 마다 변주가 들어있는 음악이며 앞선 장면들의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또한 이전 장면들과 다른 속도와 질감의 움직임들과 외부의 요인으로 힘들어하는 모습과 혼란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4장의 분위기에 적합한 음악이다.

4.4.4 무대장치 및 조명

3장의 음악의 후반부에 공간을 나누던 윗광 (top light)이 사라지며 4장의 노래시작과 함께 상측광 (high side light)과 측광 (side light)이 어두운 푸른색으로 바뀌고 조명의 밝기를 낮추어 무용수들의 모든 것이 보이기보다 음악과 움직임이 주는 강한 느낌과 푸른색이 주는 신비감으로 4장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4-13] 조명 플랜

4.5 5장

4.5.1 내용 및 안무의도

이번엔 어지럽혀진 고민들을 다시 정리하지 않고 직접 해결해보기로 한다.

고민들을 하나씩 살펴보지만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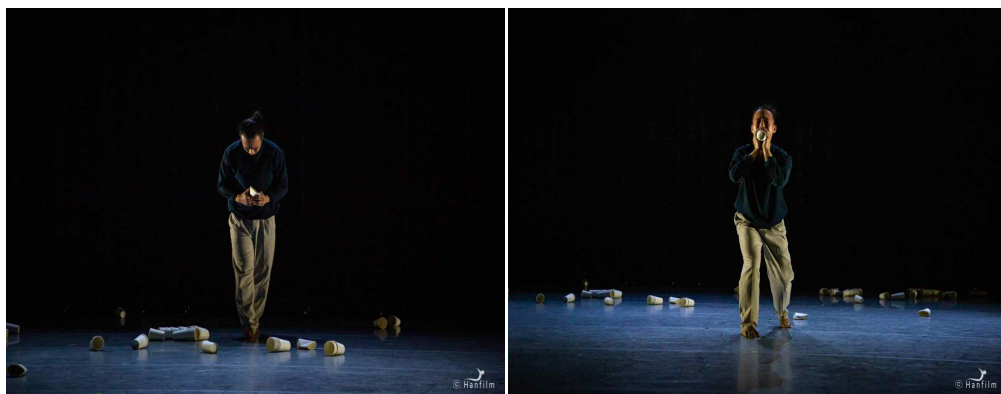
하지만 다른 고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고민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든다.

5장에서는 무용수가 결국 고민을 해결하고자 직접 나선다. 그렇게 고민들을 살펴보던 중 다른 모습의 고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나서 무용수는 많은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것을 말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워 소리 지르게 된다.

4.5.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4-16], [사진 4-17] 5장 (직접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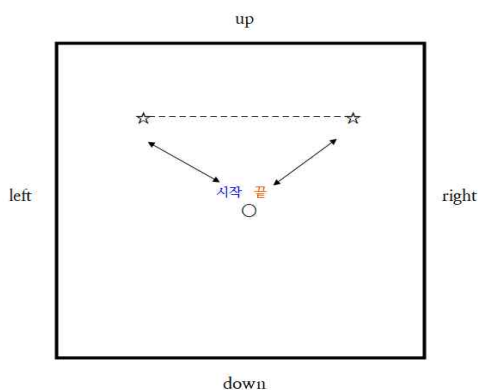
[사진 4-18] 5장 (다른 고민을 발견)

[사진 4-19] 5장 (많은 생각과 감정을 담아 소리 지른다)

이 작품에서 마지막 장면인 5장은 1장과 같은 무음에 행위가 진행되며 홀로 남겨진 무용수가 어지럽혀진 고민들을 다시 정리하지 않고 이번에는 본인의 의지로 고민을 해결하고자 나서게 된다.

무용수는 고민들을 하나씩 살펴해보지만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 고민들만 가득했고 계속 찾다보니 다른 고민을 발견하게 된다.

홀로 남은 무용수는 고민을 발견하고 많은 생각이 들게 되며 그것들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소리 지르게 된다.



[그림 4-14] 플로어 패턴

4.5.3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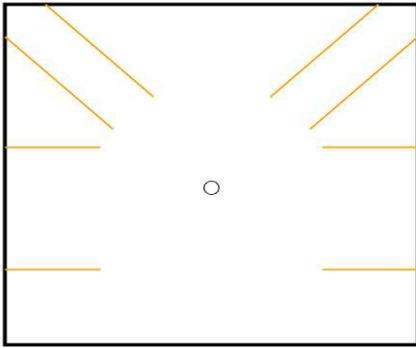
홀로 남은 무용수가 다른 고민을 발견하였을 때 5장의 음악이 나온다.

작품의 마지막 곡으로 선택한 Erik Satie - Gymnopédie No.1는 간결하고도 단순한 구성의 연주곡이지만 이 곡의 느낌과 마지막에 무용수가 감정 실어 소리 지르는 표현과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작품의 여운을 남기기 위해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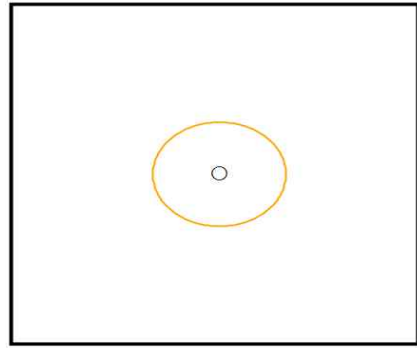
4.5.4 무대장치 및 조명

5장의 시작인 무음에 홀로남아 고민들을 직접 해결하려 할 때는 백색의 조명으로 [그림 10-1]과 같이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무용수가 다른 고민을 찾는 과정과 마지막 소리치기 전까지 [그림 10-2]로 서서히 바뀐다.

마지막의 엔딩 장면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 다른 조명들을 천천히 빛을 감추고 마지막 남은 조명으로 무용수만 보이게 하였고 여운을 위해 조명들은 천천히 사라진다.



[그림 4-15] 조명 플랜



[그림 4-16] 조명 플랜

V. 결 론

본 연구자는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밀레니얼세대의 고민을 주제로 만들어진 작품 「나를 찾아서」를 제작, 연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밀레니얼세대의 고민을 무용 예술로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과정에 있어 밀레니얼세대가 가진 고민 중 불확실한 미래에 있어서 느끼는 불안함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에서 비롯된 고민이 연구하는데 있어 공통점이 되어 작품을 이끌어가는 주제가 되었다. 이에 「나를 찾아서」라는 작품에 본 연구자를 투영시키게 되었다.

작품의 주제인 불확실한 미래에 있어서 느끼는 불안함과 이에서 비롯된 고민들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주제이므로 본 연구자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관객들을 이해시키고 공감 시킬 수 있을지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작품의 움직임 중 2장의 바디 컨택 움직임 (body contact)에 높낮이 차이를 두어 홀로 있던 무용수가 고민의 길잡이를 의자의 형태로 받쳐주거나 발판을 만들어 주고, 고민의 길잡이는 그 위에 편안히 앉아있거나 걷는 모습을 통하여 두 무용수간의 관계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어서 3장의 무용수 두 명이서 한 몸인듯한 바디 컨택 움직임 (body contact)과 다른 한편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무용수의 모습을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 조명을 이용하여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관객들에게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며 작품의 구성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2장과 4장의 무용수들의 독무는 작품 속 각자 역할에 기초를 두어 고민에 대한 생각을 무용수들 개개인의 움직임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과정 속에서 발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쓰이지 않은 표현방법이 수많은 종이컵이 무용수의 체중을 지탱하며 그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는 무용수를 통해 주제를 표현하는 것과 종이컵에 물과 얼음을 담아 흘리고, 닦고, 줍는 행위가 주제 표현을 더욱 모호하게 하고 움직임에 제한점이 있어 다른 방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현재의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더욱 효과적이고 표현의 범위가 넓은 방식으로 작품

을 창작하였다.

그리고 소품으로 사용한 종이접은 고민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작품에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지럽혀져 있는 고민을 정리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고민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정리하던 고민들은 어지럽혀지고, 도움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의 도움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생각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 다시 어지럽히게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결하려 하지만 해결되기보다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럽혀진다. 그러다 마지막 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서며 고민들을 찾고 살펴보는 것은 결국 자신의 고민은 주관적인 것이기에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다른 모습의 고민을 발견한 뒤 소리 지르는 것은 앞선 장면들로 인한 힘듦과 다른 모습의 고민을 발견하게 되고 마주하면서 드는 여러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였다. 작품의 이러한 과정들과 그 속에서 생긴 시련, 갈등을 통해 자기 자신의 고민을 직접 행동하며 찾고, 해결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관적의 관점을 가진 고민이라는 주제를 찾는 것을 빗대어 「나를 찾아서」를 제목으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 과정과 표현을 통하여 오브제의 확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과정을 통하여 예술에는 표현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6·25전쟁 이후 이 시대를 살아온 각 세대들의 과거와 현재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그 특징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대상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나를 찾아서」의 작품 속 밀레니얼세대의 모습을 통해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비롯된 삶의 불안정함과 이 사회에서의 불안감을 표현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생기는 시련과 갈등을 겪으며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현재 시대의 밀레니얼세대가 고민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 어려움을 표현했다.

「나를 찾아서」라는 작품을 창작하며 본 연구자에게 필요했던 자신이 직접 행동하는 실천력과 자신이 주도하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을 발견하며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하였으며, 밀레니얼세대 뿐만 아니라 앞선 세대인 베이비붐세대, 386세대, X세대 등 다른 세대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나를 찾아서」를 창작 하였던 본 연구자는 관객들에게 객관적으로 표현해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효용론적 관점과 다양한 의견을 통해 표현 방법을 연구하며 「나를 찾아서」를 창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만족을 추구하던 본 연구자의 안일했던 예술관을 재정립하게 되었으며, 이제 사회에 첫발을 딛는 사회인, 무용인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 고 문 헌

- 고재연. (2018). 『산업화세대→베이비부머→X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 세대별로 성장 배경과 소비 패턴·가치관이 모두 다르죠~』. 서울: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101267181>.
- 고희선. 김창기. 이성호. 이종규. 천세기. (2007). 『무대조명Ⅲ』. 서울: (주)교보문고.
- 김미혜·정순돌. (2015). 『한국 베이비부머의 삶과 미래』. 서울: 학지사.
- 김인옥. (2019). 『90년생이 팀장의 성과를 만든다』. 서울: 텔루스.
- 김한초. (1995). 『세대[世代]』.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현정. (2020). 『90년생이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서울: 자음과모음.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 고양: 위즈덤하우스.
- 송은천. (2019). 『밀레니얼 네 맘 다 알아』. 서울: 좋은땅.
- 심혜경. (2019). 『밀레니얼에 집중하라』. 서울: (주)북스고.
- 왕일사. (2012). “무대의상 디자인에 나타난 상징성에 관한 연구 : 중국 신가극 '백모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율이. (2017). “에릭 사티의 제1기 피아노 작품에 관한 분석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식. (2018). 『[교육칼럼]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 서울: 에듀프레스.
- 정원희. (2018). 밀레니얼 세대분석을 통한 제주 변화의 방향. 『제주발전연구』 제22호, pp3~4.
- 정철인. (2015). “무용 작품 「자유낙하-시시포스의 발견」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정. (2006). “무용창작에 있어서, 무음악 사용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 Doris Humphrey의 Water study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

용원 예술전문사증서논문.

조종엽. (2019). 『“일자리-고임금 독점 386세대, 자식세대에 기회-자원 이전
해야”』. 서울: 동아신문 동아닷컴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9/97011497/1>

최재연. (1998). “현대무용에 있어서 무음사용이 갖는 효과에 관한 질적 연
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정. (2018).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13 「비창」에 관한 연구”. 수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8). 『밀레니얼 세대』. 시사상식사전.

부 록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나를 찾아서
일 시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pm7시
장 소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강당
안무자	이 수 빈
출연진	이 수 빈, 김 나 연, 박 정 무, 조 영 재
조명감독	주영석
사진/영상	Hanfilm
주 최	한성대학교

팜플렛

HANSUNG UV

MOVEMENT MOVEMENT

**2020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
청구 작품 발표회**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PM 7

조명감독
주영석

사진/영상
Hanfilm

주최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삼선동2가) 한성대학교

권혁 김송연 박민지 박지예 이수빈

출연진

Korea dance



박지예

Modern Dance





권혁 박민지 이수빈

Ballet



김송연

교수진



박재홍 교수님 (발레)



김남용 교수님 (한국무용)



정석순 교수님 (현대무용)

Lee soo bin

작품 제목 나를 찾아서

작품 내용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밀레니얼 세대가 가진 홀로서기에 대한 불안감과

아직 미래가 불확실한 이십대가 가지는 취업, 가족,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이런 고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러한 생각들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나 자신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한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앞으로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일을 도전해야 하는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나의 미래는 나를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이 작품을 만들며

제가 어느덧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나간 학교생활의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모든 것에 대한 마침표가 아닌, 제가 살아가는데 있어 거쳐가는 한 단락의 마침표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험사리 말하지 못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제가 이십대를 보내온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저 혼자 오롯이 사회에 나서야한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해온 것들을 앞으로도 할 것 인가? 에 대한 고민과 아니면 이제라도 다른 길을 도전해야 하는 것 인가? 에 대한 고민과 이러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 어느샌가 제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라는 저 자신에 대한 것 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위로 받고, 공감 받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작품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직 많이 미숙하고 어리숙한 "저" 이고, 저의 작품이지만 앞으로 제가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많은 응원과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직접 말은 못하지만 많이 부족한 나를 도와준 "영재", "정무", "나연" 에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물 및 출연



이수빈

출연



김나연



박정무



조영재

지도교수 : 정석순 교수님

ABSTRACT

Analysis on the Work 「In Search of Me」

Lee, Soo-Bin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is a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expression methods of a contemporary dance work 「In Search of Me」 created under the theme of concerns originated from anxiety about uncertain future of current Millennials.

Each generation of this era has kept many concerns about life. The baby boom generation who was born after the Korean War has a concern about the reality in which no one recognizes their sacrifice for the nation and family, and an economic concern about double-responsibility of elderly care and childcare after retirement.

The 386 generation who was born in the 1960s has a concern about making righteous society by standing against absurd society, and a concern at a crossroads such as getting social criticism about monopolizing high-paying jobs, and retirement.

The X-generation born in the 1970s~1980s has a concern originated from social criticism about their individualism and tendency to express

their freedom, individuality, and preference, and a concern originated from criticism about their pursuit of stability rather than new attempts or changes.

The Millennials born in 1981~1996 has a concern originated from uncertain future, and a concern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social life.

Like this, every generation has concerns according to time and situation, and the researcher who has analyzed such concerns conducted a research focusing on problems originated from concerns of Millennials, and then expressed a work by reflecting the researcher belonging to Millennials into the work.

To deliver the concerns originated from uncertain future of Millennials, the researcher produced a work 「Looking for Myself」 based on three settings such as [Millennials = the research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during social life = dancer], and [Paper cup = concern].

This work composed of total five chapters represented the process of solving concerns about uncertain fut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social life of Millennials, and following ordeals and conflicts, by using expression methods and props.

In order to effectively deliver the theme of this work, the acts like repetitively stacking up paper cups as props, searching for them, or speaking to or yelling at the paper cups were performed. And the concern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social life was represented into various methods through movements of three dancers.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work by dividing it into space composition of stage, movement method and image used in the work, and the meanings of props metaphorically expressing the theme of the work.

In the research process, this study found that the former generations also had concerns according to time and situation just as the current Millennials' concerns.

Therefore, the researcher aims to show the viewers of this work that the contemporary dance creative work 「In Search of Me」 has interpreted and represented the concerns in the perspective of Millennials into various viewpoints and movement methods.

【Keywords】 Generation, Millennials, Concern, Uncertain Future, Interpersonal Relationship